

삼성, 美 기업평판 톱10 복귀 지속적인 사회공헌 인정받아



갤럭시 노트7 사태로 신뢰도 하락
이재용 부회장 검찰 수사도 한 몫
실적·사회 공헌으로 제자리 찾아

삼성이 미국에서 기업평판 '톱 10 위'의 지위를 되찾았다. 갤럭시 노트7 사태로 신뢰도가 떨어졌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제자리를 되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은 최근 '2019년 기업평판 우수 100대 기업'에 삼성전자를 7위에 올렸다.

삼성전자가 획득한 평점은 80.0점이다.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Excellent)'로도 분류됐다. 지난해(77.56점, 35위)보다 28계단이나 상승하면서 가장 가파르게 순위를 올렸다.

아울러 '성장 유망 기업' 순위에서는 4위로 더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장성 3위 ▲제품·서비스 4위 ▲경영 흐름 6위 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삼성이 톱10에 오른 것은 3년만이다. 2014년 7위로 진입한 후 2015년 3위, 2016년 7위로 톱10을 유지해오다가

미국 기업평판 톱10

	2018	2019	CHNG
Samsung	#35	#7	▲ 28
Sony	#31	#10	▲ 21
21st Century Fox	#74	#53	▲ 21
The Home Depot	#26	#12	▲ 14
Procter & Gamble	#20	#8	▲ 12
L.L. Bean	#15	#4	▲ 11
JPMorgan Chase	#63	#52	▲ 11
Royal Dutch Shell	#66	#56	▲ 10
LG Corporation	#25	#15	▲ 10
Patagonia	#9	#3	▲ 6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

	2018	2019	CHNG
Facebook	#51	#94	▲ 43
Tesla Motors	#3	#42	▲ 39
McDonald's	#59	#88	▲ 29
Target	#49	#72	▲ 23
Nike	#12	#35	▲ 23
Chick-fil-A	#4	#22	▲ 18
Google	#28	#41	▲ 13
Comcast	#78	#91	▲ 13
Sears	#88	#97	▲ 9

/자료=해리스 폴

2017년 49위로 순위가 주저 앉았다.

당시 삼성은 갤럭시 노트7 사태로 모바일 시장에서 신뢰도를 크게 잃었다. 발 빠르게 교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미지 하락을 최소화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 수사로 구속에까지 이르면서 나쁜 점수를 받았다.

2018년 삼성은 35위로 소폭 순위를 회복한 후, 대대적인 사회 공헌과 함께 공격적인 경영으로 평판을 다시 제고하기 시작했다. 연간 실적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위상을 높였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 후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 광폭 행보를 이어가면서, 삼성에 대한 긍정 이미지도 다시 돌아온 것으로 분석된다.

1위는 미국 슈퍼마켓 체인 웨그먼스가 아마존을 제치고 차지했다. 패션브랜드

파타고니아와 L.L. 빈, 월트디즈니, 퍼블릭스가 삼성 위에 섰다. P&G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는 삼성보다 낮은 톱10 기업이었다.

LG도 79점으로 15위에 랭크됐다. 전년비 10계단 올랐다. 등급은 '최우수(Very Good)'였다. 현재는 72.3점으로 61위에 머물렀다. 5계단 하락해 '우수(Good)' 등급을 받았다.

가장 순위가 크게 떨어진 기업은 페이스북으로 51위에서 94위로 밀려났다. 테슬라도 3위에서 42위까지 내려앉았다.

한편 해리스폴은 미국 성인 1만8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순위를 매겼다. 주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도, 사업 실적, 조직 문화 등을 물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모델이 LG 베스트샵 서울양평점에서 LG G8 ThinQ의 디자인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가까운 매장에서 'G8 씽큐' 체험하세요

LG전자, 베스트샵에 체험존 마련

LG전자가 7일부터 수도권 LG 베스트샵 30여 개 매장에 전락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8 ThinQ(씽큐)' 체험존을 마련한다. 다음 주부터는 전국 4000여 이 동통신사 매장 및 LG 베스트샵에도 제품을 전시한다.

LG G8 씽큐 후면은 카메라 모듈부 돌출이 전혀 없고, 지문 인식 센서도 더욱 부드럽게 처리해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일체감이 돋보인다. 제품 전면에는 상단의 작은 수화부 리시버까지 없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자체를 스피커 진동판으로 활용하는 '디스플레이 스피커'는 화면부 어디에 귀를 대더라도 선명한 음질로 통화가 가능하다. 외부 스피커로 음악을 들 때는 제품 하단 스피커와 함께 2채널 스테레오 사운드를 구현한다.

이어폰이나 음원 종류에 상관없이 사운드의 입체감을 강화해주는 DTS:X 기술은 외부 스피커에도 적용돼 LG만의 고품격 사운드를 이어폰뿐 아니라 스피커로도 즐길 수 있다. 강력한 중저음으로

박진감을 높여주는 '뽀박스 스피커'도 그대롭다.

LG G8 씽큐는 'Z 카메라'로 업그레이드된 화질은 물론 편의성과 재미까지 더해진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한다.

Z 카메라는 인물과 배경만을 구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인물과 카메라와의 거리를 밀리미터(mm) 단위로 나누어 정교하게 계산하고, 심도를 표현하기 위한 화면 흐림 정도를 256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다. 카메라 이미지 센서 크기는 1.22μm로 LG V40 씽큐 보다 약 10% 커져 더욱 깨끗한 사진을 구현한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적용된 정맥 인식기능은 카메라를 향해 손바닥을 비추기만 하면 손바닥 안에 위치한 정맥의 위치, 모양, 굵기 등을 인식해 사용자를 식별한다. ToF 센서와 적외선 센서의 조합으로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얼굴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면 Z 카메라를 향해 제스처를 취하면 스마트폰을 구동할 수 있어 직접 스마트폰을 만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편리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가장 완벽한 TV”... 해외서도 'QLED' 찬사

삼성전자 '2019년형 QLED TV'
변함없는 색상·선명한 블랙 등
8K·4K 동급 최고화질 구현 호평

해외에서도 삼성전자 2019년형 QLED TV(사진)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65형 4K Q90R 시리즈 제품은 8K뿐 아니라 4K까지 동급 최고 화질을 구현해준다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지 포브스는 삼성 QLED 4K 65 Q90R을 '삼성의 놀라운 업적'이라고 표현했다. 올레드보다 나은 밝기를 구현하고, 블랙 표현도 훌륭하다고 소개했다.

전자제품 리뷰 매체 트러스트리 리뷰도 색상 왜곡이 없고 블랙 표현도 향상됐으며, 퀀텀프로세서를 4K에도 적용해 영상과 사운드가 최적화됐다고 설명했다.

IT 전문 매체 HD구루는 '지금까지 경험한 최고의 4K TV 중 하나'라며 최고

점 5점을 줬다. '울트라 뷰잉 앵글'로 넓은 시야각을 표현했으며, '퀀텀프로세서'는 최고의 영상처리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IT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도 삼성 QLED TV가 뛰어난 밝기와 세밀한 색상 표현 등 최고의 HDR 경험을 제공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점수도 만점인 5점을 부여했다.



영상과 음향기기를 다루는 매체 애플이파이와 IT 전문 매체 포켓린트도 삼성 QLED TV가 LCD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극찬했다.

변함없는 색상 표현과 선명한 블랙으로 LCD 디스플레이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포켓린트는 "소비자들이 가장 완벽한 4K TV를 가지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삼성전자, TV 전기선까지 없앤다

삼성전자 TV가 전기선까지 없앨 전망이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무선 전력 송수신 시스템'에 관한 기술 특허를 신청했다.

전력은 가로 막대 형태 패드로 공급받는다.

TV를 패드 근처에 두면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계했다. 사운드바로도 응용할 수 있어 전기선과 연결선까지 해소할 수 있다.

비슷한 기술로는 전기차용으로 선보여진 퀵 충전 '헤일로'가 있다. 도로 위에 패드를 설치하고, 전기차가 패드위로 이동하면 충전을 해주는 방식이다.

미국 포브스는 무선 충전이 충전량에서 단점을 갖고 있지만, TV 전력 소비량이 크게 줄어든 만큼 무선충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김재용 기자

SKT, 광·사이판에 5G 기술력 전파

박정호 사장, 'IT&E' CEO 만나
올 하반기 5G 상용화 위해 맞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7일 광 소재 IT&E본사에서 시타텔홀딩스 호세 리카르도 델가도 CEO와 광·사이판 이통사 IT&E 제임스 월라킹 CEO를 만나 광·사이판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SK텔레콤과 IT&E는 유선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고정형 무선 접속 방식인 FWA로 광과 사이판에서 올 하반기 5G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현지 유선인프라 환경과 지형적 특성, 가정·기업 고객 니즈 등을 분석한 결과, 무선 FWA 방식으로 5G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층 빌딩이 거의 없이 탁 트인 현지 지형지물 특성상 28기가헤르츠(㎐) 대역의 강한 직진성으로 효율적 커버리지 확대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IT&E는 5G 주파수로 28㎐ 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사이판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 지역과 현지 기업고객, 유선망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부터 5G 서비스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SK텔레콤은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5

G망 설계, 효율적 망 구축을 지원하고 현장 시험 서비스 및 최적화 작업을 실시하는 등 망 설계·구축·운용 기술 노하우를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과 IT&E는 5G 관련 구체적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양사가 최우선으로 제공 검토 중인 분야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이다.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적용된 5G망을 광·사이판 주요 지역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초고속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양사의 이번 5G 협력은 SK텔레콤의 5G 기술력과 뉴 ICT선도 역량이 단순히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6월 광·사이판 이통사 IT&E에 약 35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IT&E는 사이판 무선통신시장에서 1위이며, 광·사이판 전체 기준으로는 경쟁사인 도쿄코퍼시픽, GTA와 대등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국내에서 이용 중인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터를 추가 요금 없이 현지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T광·사이판 국내처럼' 서비스를 지난해 9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